

2020 추수감사예배

질그릇에 담겼을지라도

[고린도후서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 보배

오늘 본문을 보니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가? 존귀하고 가치있는 물건을 보배라 한다. 성공한 인생의 척도는 '보배'에서 결정된다. 가장 가치있는 보배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인생은 '보배'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한 것이다. 내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보배'라 말한다. (예-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보배라 표현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보배'는 다를 것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의 보배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보배를 무엇으로 정의했을까? 보배는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바울의 인생이 180도 변한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었다. 자기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자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태복음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4절에 보화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한다. 천국,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이다. 이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발견했을 때 기쁜 것이다.

2. 질그릇 - 깨어짐

두 번째 질문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왜 질그릇인가?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토기'이다. 성경에서 토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을 말한다.

[이사야 64:8]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질그릇은 무엇을 말하는가? 질그릇은 연약하다. 깨어지는 그릇이다. 보통 보배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금고에 담아 보관한다. 그래서 재질 자체가 좋다. (금, 은, 다이아몬드, 강철 등) 왜 하나님은 보배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으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다. 보배가 나타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한다. 그릇의 용도는 보배를 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것은 보관이 목적이 아니라, 보배가 나타나는 것이 목적인다는 사실이다.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다. 약하다. 상처도 잘 받는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져야 보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쓸모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연약한 토기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분명하다. 토기장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어짐'의 자리로 부르신다. 깨어짐은 나의 연약함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라. 질그릇과 같은 그들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다. 아픈 순간이다. 그런데 그 깨어짐의 순간,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님이 보인다.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놀라운 순간이다.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연약한 인간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등장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사실이 놀랍다.

3. 깨어질 연약함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소중히 여긴다. 세상은 그 연약함이 나타나면 짓밟고 도태시켜 버린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그 반증이 예수님의 등장이다. 인간이 강하고, 능력 있고, 깨지지 않는 존재라면 예수님의 등장은 없다. 그분이 연약한 질그릇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 깨어지기 위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깨어짐이라 말할 수 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지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부서져야, 깨어져야 보배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이다. 그 부활 안에 우리가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이 깨어짐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놀라운 비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의 자리를 피한다.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간다. 영광의 자리를 피한다. 영광의 중심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자리에 있기를 좋아한다.

비밀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깨어짐을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깨어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깨어짐이 없는 인생이 사탄에게 속은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이다. 깨어져야 심령이 가난해진다. 연약해야 겸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분명하다. 깨어질 질그릇에 보배를 두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자. 깨어짐을 두려워 말라. 상한 심령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불문율이다. 그 임재는 너무나 강력하다. 감사하자. 오늘 연약한 질그릇과 우리들 안에 보배를 담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자.